

2015 아시아 태평양 녹색피당 총회
청년녹색당 참가 보고서

주요어: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청년녹색당

1. 오픈 스페이스 : 언어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APGF와 같은 국제 행사에서는 주로 영어가 공통어로 사용된다. 그렇기에 영어가 제1언어가 아닌 사람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속도를 따라가는 것,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영어가 유창한 사람과 유창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언어 능력 차이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며 행사를 이룰 수 있을까?

① '밥 말리 언어'

본 워크숍을 연 일본 녹색당원 요헤이는 언어 문제로 이번 일본 녹색당같은 경우 함께 온 통역가의 동시통역으로 행사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밥 말리 언어를 소개 하며 모두 쉬운 단어만으로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② 'Political Language Workshop'

글로벌 그린스 창시 멤버 중 한 명이었던 마가렛 같은 경우 'Political Language Workshop'을 한번 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행사 특성상 정치적인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분분했다기 때문이다. 영어가 제1언어인 사람들에게는 보다 쉬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언어인 사람들에게는 전문적인 정치용어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APGF와 같은 국제교류를 하는 데에 있어 보다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③ 바디 사인

실제로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말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한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말이 너무 빨라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경우, 천천히 말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디사인을 만들어 말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바디 사인은 상대의 대화를 끊지 않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워크숍 후 참여자들은 주최 측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천천히, 쉬운 단어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총회 진행자들에게 전해져 행사 마지막 날까지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노력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녹색당 창당 방법: 녹색당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워크숍의 진행자이자 호주의 상원의원인 자넷을 중심으로 지난 이십년 동안 호주에서 녹색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해왔는지를 듣고, 참여한 각 나라의 녹색당 역사를 간략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는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솔로몬,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참여했는데, 참여자들이 녹색당을 만들어 가는데 겪는 어려움을 주로 얘기하고 호주나 뉴질랜드의 자문을 구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토론보다는 질의응답 형태였다.

① 호주 녹색당 역사

년도	내용 및 총선 득표율
1992년	창당
1996년	2.4%
1998년	2.7%
2001년	4.9%
2004년	7.7%
2007년	9.0%
2010년	13.1%
2013년	8.7%
현재	11명 연방의원, 약 20명 지역 의원

② 워크숍 참여국 녹색당 정보

국가	창당연도	특징
뉴질랜드	1990년	국회의원 14명
대만	1996년	지방의원 2명, 당원 약 450명
일본	2012년	지방시의원 63명
인도네시아	준비 중	환경단체 중심 조직

질문 1) 당 자금이 대표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나? (대만)

답변) 호주 같은 경우 득표율에 따라 자금이 모이기 때문에 선거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당 차원에서 회의를 통해 정한다.

질문 2)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LGBT 주제가 공론화되기 어렵다. 다수가 불편해하는 주제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설득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

답변)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선거 때마다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가 불편해하는 주제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확실한 타겟층을 정하여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제, 공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 아이가 있는 삼사십대 당원들이 많은데, 녹색당이 미래, 아이들, 건강 등을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3. 아시아 태평양 지역 녹색당 정치적 플랫폼과 전략

APGF의 전략적 계획과 방향성의 키워드를 뽑고, 우리가 APGF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의미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나누었다. 우리가 APGF를 이루고 있는 이유, APGF의 역할, 기대하는 것, 방향성 등을 3-4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하고, 전체자리에서 각 그룹마다 이야기된 것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시간이었다.

내가 속해 있던 그룹의 필리핀 녹색당원은 계속해서 APGF에서 지역적인 균형을 강조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들이 녹색당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작은 정당이 큰 정당의 힘과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 영향이 최대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① 주요 질문

- APGF은 무엇인가?
- APGF의 미션은 무엇인가?
- 무엇이 연합인가?
- 무엇이 네트워크인가?

② APGF의 미션 (본 워크샵에서 진행된 소그룹 토의를 바탕으로 함께 만든 세 문장)

- 1) Grow the Green political influence across the Asia Pacific reg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녹색 정치의 영향력을 성장시키자
- 2) Creating strong green change in the Asia-Pacific reg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녹색 변화를 만들자
- 3) Sharing resources and information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자

4. 기금 마련

본 워크숍은 뉴질랜드 녹색당 펀드 매니저인 순자가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인도, 대만, 몽골, 일본, 한국, 뉴질랜드, 네팔, 솔로몬, 호주 당원들이 참여했는데, 나라별 인원 수의 균형이 잘 맞춰져서 워크숍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각 나라마다 어떤 식으로 당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당비는 어느 정도인지 공유하고, 기금을 마련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나누었다. 각 나라 경제의 차이에 맞게 당비는 조금씩 달랐고, 대만 같은 경우 후원자들이 기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금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했는데, 워크숍 진행자는 모금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상황극을 진행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돈에 대해 물어볼 때 수반되는 울타리들을 보다 쉽게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① 호주 녹색당 재정 운영의 특징

-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부에서 정당지원금 지원
- 지원금 일부를 국제교류 기금 예산으로 마련
(새로 녹색당을 창당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다른 나라 지원)
- 국제교류 기금으로 2015 APGF 진행에 있어 제3세계국 나라의 녹색당 대표자 초청
- 올해 9월부터는 1년 과정의 APGF 인턴십 기획 중

② 상황극 주요 질문

- 왜 녹색당을 후원해야 하는가?
- 녹색당과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 얼만큼 기금이 필요하나?

③ 더 많은 후원자를 만들기 위한 방법

- 신뢰 관계를 만들 것
- 돈을 줄 때와 받을 때의 기분을 생각할 것
- 자신감 있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
- 필요한 액수는 정확하게 말할 것

5. 아시아 태평양 청년 녹색당 네트워크

호주, 뉴질랜드, 몽골, 대만, 한국 청년 녹색당원들이 참여했으며 현재 각 나라의 어떤 청년 문제와 이슈가 있고, 그에 대해 청년 녹색당원들은 어떤 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나누며 전반적인 상황공유를 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년 녹색당원들이 어떤 주제로, 어떻게 연대해나갈 수 있는지 얘기하며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했다.

한국 청년 녹색당에서는 주요 이슈를 최저임금과 대학 구조 개혁으로 정리하여 워크샵에 참여하였고, 관련 주제들에 대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듣고자하였다. 현재 다른 나라 청년 녹색당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학 구조 개혁 문제는 똑같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나라라고 할 것 없이 모두 경제, 경영, 법학과는 인기가 많고 탄탄해지는 반면 전통 예술, 순수 미술과 같은 분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호주 같은 경우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청년 주거문제가 있었다.

워크샵 참여자들이 각국의 상황과 이슈들을 전혀 알지 못해 정보를 공유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아쉽게도 충분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

① 각 지역 별 이슈 및 상황

- 한국: 최저임금, 대학 구조 개혁
- 대만: 청년 주거문제(높은 주거비용), 중국 서비스무역협정 반대 운동
- 몽골: 대기, 물 오염 문제 (낮은 배수시설)
- 호주:
- 뉴질랜드: 오래된 주거 공간 위생, 안전문제

② 나라별 최저임금

국가	최저임금
호주	약 15달러
뉴질랜드	약 12달러
대만	약 6달러
몽골	11시간에 약 5달러

③ 연대 방법

- 1) 아시아 태평양 청년 녹색당 연락 리스트 작성
- 2)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 3) 화상 모임 진행